

# 콜롬비아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09. 8.

I. 일반개황	
II. 경제동향 .....	1
III. 정치·사회동향 .....	7
IV. 국제신인도 .....	9
V. 종합의견 .....	11

## 콜롬비아

### I. 일반개황

면적	1,039천 Km <sup>2</sup>	GDP	2,425억 달러(2008년)
인구	47.6백만 명(2008년)	1인당 GDP	5,095달러(2008년)
정치체제	대통령중심제	통화단위	Peso(Ps)
대외정책	경제중심 실리외교	환율(달러당)	1,965.14

- 콜롬비아는 남미지역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국가로서 현재 4천8백만 명을 기록하고 있으며, 2007년 국제연합개발계획(UNDP)이 발표한 '인간개발지수(Human Development Index)'에 따르면 동국은 전체 177개국 중 75위로 중위그룹에 속함.
- 1990년대 후반에 고금리 및 재정적자로 인한 외채누적 등으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으나, 알바로 우리베(Álvaro Uribe) 대통령 취임 이후 치안이 개선되면서 투자여건이 호전되고, 주요 수출품인 석유와 커피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규모 확대에 힘입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세를 보여왔음.

## II. 경제 동향

### 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 : %

구 분	2004	2005	2006	2007	2008 <sup>e</sup>	2009 <sup>f</sup>
경제성장률	4.7	5.7	6.9	7.5	2.5	-1.2
재정수지 / GDP	-0.5	-0.4	-0.4	-0.4	0.1	-3.4
소비자물가상승률	5.9	5.0	4.3	5.5	7.0	5.0

자료 : EIU

#### □ 대외 여건 악화로 경제성장세 대폭 둔화

- 콜롬비아 경제는 1999년대 말 수출 부진,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확대, 외채상환 부담 가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,
  - 2002년 우리베 대통령 취임 이후 치안 및 기타 사회적 문제 개선에 따라 외국인투자 회복, 실업률 감소 및 소득 증가로 인한 내수 경기 회복, 국제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2007년까지 고성장이 지속되었음.
- 그러나 2008년부터는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유럽, 브라질 경기 침체 및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은 2%대로 크게 낮아졌으며, 2009년에는 수출 부진 및 내수 침체까지 이어져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#### □ 재정적자폭 확대 전망

- 1990년대 말에는 연금지급, 외채이자비용, 지방정부 지원, 과다한 국방비 지출 등으로 4%대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,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로 2004~07년 중에는 적자폭이 0.5% 이내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음.

- 2008년 유가상승에 힘입어 재정수지가 균형을 유지하였으나(0.1%), 2009년에는 경제성장 둔화로 조세수입이 감소하고, 경기부양책 시행, 국방비 지출 등으로 정부지출이 확대되어, 재정수지 적자폭이 3%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
#### □ 물가상승 압력 다소 완화

- 콜롬비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90년대 중반 선심성 지출 확대, 지속된 폐소화 약세 등으로 20%대에 육박하였으나, 정부의 적극적인 긴축통화정책에 힘입어 1999년 한자리수대를 회복한 이래 꾸준히 감소하여 2004~2007년에는 연 4~5%대를 기록하였음.
- 2008년에는 금리 인상 및 폐소화 강세에도 불구하고, 연료비 상승, 정부 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%대까지 상승하였으나, 2009년에는 내수 침체, 식료품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어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.

## 2. 경제 구조 및 정책

#### □ 높은 대미 의존도 및 외부변동에 취약한 수출구조

- 2008년 콜롬비아의 GDP 구성<sup>1)</sup>\*은 서비스업 54.0%, 2차산업 36.6%,농업 9.4%로 나타났으며 중남미 여타 국가보다 비교적 다변화된 구조를 보이고 있음.
- 이에 반해, 교역 상대국 비중 면에서는 2008년 콜롬비아의 대미 수출 및 수입이 각각 33.4%, 31.7%를 차지하는 등 미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큰 편이며, 수출의 반 이상이 석유, 석탄, 커피 등 1차 산품에 치중되어 있어 기후 및 국제가격시세 등 외부변동요인에 취약한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음.

1) CIA 'The World Fact Book' (2009)

## □ 친시장적 정책 및 치안 개선에 따른 FDI 유입의 대폭적인 확대

- 우리베 대통령의 지속적인 재정개혁 노력 및 친시장적 정책과 더불어 우익민병대의 무장해제 등을 통한 치안 개선으로 콜롬비아는 FDI 유치에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음.
- 콜롬비아 수출진흥청 Proexport Colombia에 따르면 2008년 콜롬비아 내 FDI 유입액은 2007년 대비 17% 증가한 수준인 105.6억 달러였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5개년 평균 총 FDI유입액 61.4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임.
-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로 대부분 산업에서 FDI가 크게 위축되었으나, 석유 및 광업 부문에 대한 FDI는 꾸준히 지속될 전망이다.
  - 석유부문의 경우 2009년 상반기 FDI 유입액이 35억 달러에 달함.

## □ 유전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

- 콜롬비아에서 확인된 원유매장량은 15억 배럴로 중남미 6위 산유국이나, 치안 불안,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투자 재원 부족으로 전국토의 20%만을 탐사한 상태여서 향후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큼.
  - 새로운 유전을 개발하지 못하면, 2010년 이후 원유순수입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우리베 정부가 외자유치를 통한 원유 및 천연가스 광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.
- 또한 콜롬비아는 석탄 매장량이 중남미 1위국(세계 12위)으로 수출액 중 석탄이 원유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 석탄의 질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, 생산량의 90%를 수출하고 있음. (수출량 세계 5위)
  - 2009년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원유 및 석탄 등의 가격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석유부문의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, 투자 잠재력이 높아 외자유치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.

□ 재정개혁 및 각종 개혁 추진

- 우리베 정부는 2004-05년 적극적인 외채관리를 통해 상환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외화표시 부채를 국내통화 부채로 전환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환율변동 위험을 축소시켜 왔음.
- 2006년 3월 대선의 승리를 통해 두번째 임기를 맞은 우리베 대통령은 기존의 신중한 긴축재정정책을 유지하는 한편, 각종 구조개혁을 통한 재정 강화에 힘쓰고 있음.
  - 공공부채 축소 및 지속적인 물가상승률 안정화, 금융부문 강화뿐만 아니라 각종 인프라 건설 참여, 민영화 등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하기 위해 힘쓰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

3. 대외거래

<표 2>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04	2005	2006	2007	2008e	2009f
경 상 수 지	-906	-1,882	-2,983	-5,838	-6,761	-7,812
경상수지/GDP	-0.8	-1.3	-1.8	-2.8	-2.8	-3.7
상 품 수 지	1,347	1,595	323	-598	990	-1,029
( 수 출 )	17,225	21,729	25,182	30,576	38,546	31,762
( 수 입 )	15,878	20,134	24,859	31,176	37,556	32,794
외 환 보 유 액	15,537	14,955	15,437	20,952	23,670	22,023

자료 : EIU

□ 수출 감소 전망

- 콜롬비아의 수출구조는 석유, 석탄, 커피, 니켈 등이 전체 수출의 50%를 차지하고 있음. 2002년 이후 국제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, 석탄 및 커피 생산 증대 등에 힘입어 수출 규모는 연평균 20% 이상 증가하여 2008년에는 38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.

- 과거에 비해 대미 의존도가 크게 줄고, 베네수엘라, 에콰도르, 페루 등 안데스 인근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.
- 2009년에는 투자 확대에 따른 석유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, 석유 및 석탄의 국제가격 하락, 미국 및 중남미 지역 경기침체 등 불리한 대외여건의 영향으로 수출이 전년 대비 17% 이상 줄어들 전망임.

#### □ 경상수지 적자 확대 전망

-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최근 수년간 확대 추세에 있으며, 이는 산업활동 증가 및 경기회복에 따른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 증가,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배당금 지급 증가에 따른 소득 수지 적자 심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.
- 2000년 이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은 1%를 유지해 왔으나, 2007년에는 수입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로 2.8%로 크게 확대되었고 2008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계속되었음.
- 2009년에는 수출급감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확대, 소득수지와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, 해외근로자 본국 송금 감소 등으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폭은 GDP 대비 3.7%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
#### □ 치안 개선으로 2008년까지 FDI 유입 대폭 증가

- 대 콜롬비아 외국인투자유입액(FDI)은 우리베 대통령 취임 이후 치안상황이 크게 개선되면서 2005년과 2007년 1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.
  - 국가별 투자규모는 미국, 영국, 스페인, 앙골라, 파나마, 멕시코 등의 순이며, 주로 자원개발(석유 및 석탄) 부문에 투자가 이루어졌음.
- 그러나, 2009년부터는 주요 투자국의 경기침체, 자원가격 하락, 미국과의 FTA 발효 지연 등의 영향으로 FDI가 4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.

### Ⅲ. 정치·사회동향

#### 1. 정치 안정성

##### □ 우리베 대통령, 2006년 재선 성공

- 콜롬비아는 보수당과 자유당 사이의 정치투쟁이 정점에 이른 대폭력 시대 이후 국민전선 체제를 통해 양당간 교대집권 및 주요공직 동등배분으로 정권안정을 이루었으며, 1974년 전선 해체 이후에도 선거를 통해 비교적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유지되었음.
- 2002년 8월 취임한 우리베(Alvaro Uribe) 대통령은 강력한 마약퇴치 및 게릴라 소탕 작전을 전개하면서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였으며, 이를 토대로 2006년 3월 재임에 성공하여 2010년까지 집권하게 되었음.
- 2008년 말 현재 정책 지지율 70%는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, 우리베 정부는 세 번째 연임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한 상태임.

#### 2. 사회 안정성

##### □ 치안 개선으로 사회 안정성 개선

- 콜롬비아는 2대 게릴라단체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(FARC)과 국가해방군(ELN) 및 '70~80년대에 등장한 마약카르텔 및 우익민병대(AUC)의 활발한 활동으로 불안한 치안상황이 지속되었으나, 우리베 정부 취임 이후 치안 강화 및 꾸준한 협상 노력을 통해 2006년 우익민병대(AUC)가 공식적으로 무장 해제를 선포함.
- 2008년 3월 FARC 창시자이자 최고지도자였던 마누엘 마를란다의 사망과 정부군과의 충돌 끝에 서열 2위 라울 레세스가 사망하면서 FARC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며, 계속된 정부군과의 충돌로 인력 및 재정기반이 약화되면서 그동안 팽팽히 맞서왔던 정부와의 인질 석방 협상도 최종 타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.



- 강력한 치안 강화 정책과 더불어 우리베 대통령 취임이후 경기회복으로 실업 및 빈곤 문제도 꾸준히 개선됨에 따라 2008년 게릴라 단체에 의한 납치 건수가 2002년 대비 88%로 감소하는 등 치안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.

### 3. 대외 관계

#### □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

- 콜롬비아는 미국, EU 등 친서방국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, 특히 미국으로부터 1999년도부터 연간 6~7억 달러의 마약 및 게릴라소탕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는 등 전통적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.
- 그러나 2007년 6월 미국과 체결한 FTA 법안은 미국 국회의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.

#### □ 에콰도르, 베네수엘라 등 주변국가와의 외교관계 악화

- 2008년 3월 에콰도르 국경지대에서 벌어진 콜롬비아군과 콜롬비아무장혁명군(FARC)의 무력충돌과 에콰도르 및 베네수엘라 정부가 FARC와 긴밀한 연계가 있었음을 명시하는 내부 문서가 발견되는 등의 사건으로 외교관계가 악화됨.
- 최근에는 FARC이 에콰도르의 꼬레아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지원했다는 FARC 고위간부의 증언과, 베네수엘라가 FARC에 로켓발사기를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음.
- 그러나, 콜롬비아와 양국간 대외 의존도가 높고, 이러한 갈등이 실제로 군사적인 배치나 무역 제재조치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현 단계에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.

## IV.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

### 1.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

#### □ 국가신용등급 양호

- 2007년 S&P와 Fitch는 투자호조로 인한 경제성장세 지속, 조세수입 증대, 재정적자 축소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각각 3월과 6월에 콜롬비아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BB에서 BB+로 상향조정함.
- Moody's 또한 콜롬비아 외채부문의 괄목할만한 개선, 지속적인 경제개혁, FDI 증가 등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감안, 2008년 6월 종전 Ba2에서 Ba1으로 한단계 상향 조정한 바 있음.

<표3>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 순위

기관명	종전 평가 등급	최근 평가 등급
한국수출입은행	C1('08. 7)	C1('09. 2)
OECD	4등급(08. 6)	4등급('09. 7)
Moody's	Ba2('99. 8)	Ba1('08. 6)
S&P	BB('00. 5)	BB+('07. 3)
Fitch	BB('02. 1)	BB+('07. 6)

#### □ 주요 ECA의 인수태도 (2009.5월 기준)

- US EXIM: 최고부보율 적용
- ECGD: 최고부보율 적용
- Euler Hermes UK: 단기전액인수 가능

### 2. 외채상환태도

<표4> 대외채무규모 변화 추세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	2005	2006	2007	2008 <sup>e</sup>	2009 <sup>f</sup>
총 외 채 잔 액	37,656	39,698	41,317	40,166	40,922
총외채잔액/GDP	26.0	24.4	19.9	16.6	19.6
D. S. R.	35.3	31.3	24.9	17.8	20.9

## □ 외채상환태도 양호

- 콜롬비아는 1980년대 초 중남미 외채위기시 공적채무에 대하여 리스케줄링을 실시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로, 외채상환 및 경제운용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태도로 국제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 그동안 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양호한 투자등급을 받아왔음.
- 한편, 2005~06년중 IMF와 18개월 만기 6억 달러의 대기성차관협정을 갱신하여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추진한 바 있으며, 국제개발금융기관(MDB) 및 이국간 차관 등에 대해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.

## □ 외채관련 지표 개선 추세

- 콜롬비아 정부의 신중한 외채관리정책에 힘입어 외채규모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 2008년 말 현재 총외채규모는 GDP의 16.6%인 401억 달러이며, D.S.R도 20% 이내로 양호한 편임.

## V. 우리나라와의 관계

### □ 교역규모(2008년) : 12.3억 달러(수출 10.9억 달러, 수입 1.4억 달러)

- 콜롬비아와의 교역규모는 2005년 7.6억 달러, 2006년 11.2억 달러, 2007년 12.4억 달러, 2008년 12.3억 달러로 그 증가세가 점차 둔화된 양상을 보였으며, 2009년 6월 기준 총 수출액은 3.7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-32.3%), 수입은 0.4억 달러(-49.9%)를 기록하면서 2009년 교역규모는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.
- 우리나라의 대콜롬비아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와 전기전자제품이며,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2007년 7.2억 달러(총수출액 대비 58.2%), 2008년에는 5.3억 달러(총수출액 대비 46.3%) 등 자동차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.

- 한편, 우리나라는 콜롬비아로부터 커피, 철강 및 기타금속, 농수산물가공품 등을 중심으로 수입하고 있음.

**<표4> 최근 對 콜롬비아 수출입 추이**  
(단위 : 백만 달러)

	2006	2007	2008	주요 품목
수 출	913	1,121	1,091	자동차, 전자·전기제품, 석유화학제품
수 입	206	116	143	커피, 철강금속, 기타금속광물

자료: KOTIS

- 해외직접투자(2009년 3월말 현재 누계): 41건, 47,594천 달러

## VI. 종합의견

- 콜롬비아 경제는 2004년 이후 치안개선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대, 국제신인도 제고, 수출 및 물가 안정 등에 힘입어 3~7%대의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. 수출 및 외환보유고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, 수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.
- 2009년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경상수지와 상품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,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면서 주요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이 지난해 콜롬비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잇달아 상향조정하는 등 양호한 국제신용도를 유지하고 있음.